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⑬ 인류 문명의 위기와 한국 간화선의 가치

▶한줄 요약
불교의 연기 세계관이야말로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루며 인류 문명의 위기, 사회 정치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안의 세계관, 가치관이다.



화두 참선 통한 연기 실천, 인류 문명 대안



고양 흥국사 흥국선원에서 화두 참선하는 불자들.

인류 문명의 위기 징후들

인류 세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인간이 매우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전문가들은 동물들에게 기생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된 것은 지구 기후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늘 실감하고 있는 지구 기후 이상은 참으로 심각하다.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 저 옛날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였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급격한 기후 변동이 인류의 멸망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기후 변동은 인류 문명의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되어 있다. 산업화로 인하여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자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만큼 늘어나 지구 대기에 온실 효과를 만들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바다 온도와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간다. 이것을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 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화석 연료에서 태양열, 풍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 사용으로 대체하고 나무와 숲을 보존하고 늘려야 한다.

지구 기후 이상은 결국 인류의 공업(共業)의 과보(果報)다. 인류는 산업화 이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자원을 남용하여 왔다. 그 결과 인류는 기후 이상과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만났다. 결국, 인류는 지금과 같은 잘못된 문명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파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로 평가 받은 영국의 스티브 호킹(1942~2018) 박사는 죽기 전에 지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인류가 생존하려면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 떠나야 할 것이다' 고 전망하였다.

인류 정신문화의 위기

지구 기후 이상과 인류 문명의 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인류는 오랜 농경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자연재해나 호랑이, 사자와 같은 동물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며 총과 대포,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제 인간은 호랑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하고 애완 동물로 사육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20세기에 인간은 지구에서 창조주와 같은 절대자의 지위에 등극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서 절대자가 된 인간은 21세기에 이르러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AI)이라는 기계와 로봇에 의해 조종당하는 신세로 전락해가고 있다.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TV,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인류 지성과 문명의 위기는 인간이 정신과 물질의 조화와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한 과보이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이익 추구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의 자본주의 체제를 완성하였다. 자본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동물적인 질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문명은 한계에 직면했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언어와 문자를 고안하고 사유와 분별을 통해 지식을 쌓고 학문을 만들어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었지만, 인류의 지식과 지성은 기후 이상과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에 의해 조종 받하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이며, 또 다른 인간 지성과 문명의 위기라 하겠다.

사회 정치의 양극화와 대립과 갈등 문제

지금 인류에게 놓인 전대미문의 위기 문제를 타개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과 소속 당파의 이익을 앞세운 이해 관계 앞에서 극단적인 양극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 노와 사, 여와 야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남과 여 등 두 극단에서 대립 갈등하는 사회 정치인들은 인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보편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이분법의 가치관으로 보아 극단적으로 대립 갈등하고 있다.

국가와 인류 공동체가 직면한 지구 기후 이상, 탄소 줄이기 문제, 자연 에너지의 재활용, 빈부의 양극화, 일자리 창출, 도시 집중, 인공지능의 윤리적 기준 마련, 산림의 확대 등의 시급한 인류 문명사적인 보편 과제는 소속 정당의 권력 쟁취와 유지라는 작은 이익 때문에 늘 무시되고 있다.

> 인류 정신문화 위기의 시대
> 양극화된 사회 바로 세우려면
> 중도연기법 세계관 · 참선으로
> 내 안에 지혜 · 평화 밝혀내야

사회 정치인들의 양극화는 이분법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다. 정치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편을 가르고 자신을 지지하는 편은 옳고 반대하는 편은 악이고 적이라 죽도록 저주하고 있다. 이런 두 극단의 사회 정치 흐름에서 인류의 문명사적인 위기 문제는 뒤로 미루기 일쑤다.

산업 문명과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은 서양의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의 산물이다. 창조주 절대 신이 있다는 믿음과 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으로 나눠서 세상을 보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선과 악, 물질과 정신, 좌와 우, 노와 사라는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낳는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낳아 20세기에 1, 2차 세계대전으로 2천5백만 명이 죽는 인류의 재앙적인 참사를 가져왔다. 지금도 중동을 비롯한 서양의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 사이에는 갈등과 전쟁이 멈출 날이 없다.

이러한 서양의 이분법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위기에 처한 인류의 산업 문명을 창조하였는데, 과연 지금 위기에 처한 인류 문명을 이분법의 세계관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서양의 뜻있는 지식인들은 신 중심 또는 이분법의 가치관을 버리고 동양의 일원론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주목하고 있다. 유대인으로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평해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1879~1955)조차 '불교는 우주의 종교' 라 보았고, 아놀드 토인비(1889~1975)와 같은 역사학자는 '20세기에 최대의 사건은 서양에 불교가 전해진 것이다' 고 평가하였다.

지금 서양에서 큰 붐을 이루고 있는 불교와 명상에 대한 관심도 이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문명의 대안 불교의 연기 세계관

인류의 문명사적인 위기에 불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왜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아놀드 토인비와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은 불교에 주목한 것일까?

불교는 우주 만물이 연기(緣起)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 우주 만물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해서 모이고 흩어질 뿐이다. 현대 과학이 발견한 원자 - 양성자 · 중성사 - 힉스로도 연기설은 입증이 되고 있다. 불교의 연기설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우주 만물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니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다. 이러한 연기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볼 때 나와 자연은 한 몸이요, 분리될 수 없으니 자연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바른 가치관이 설 수 있다.

이 연기의 세계관으로 현실 사회 정치를 본다면, 진보와 보수, 노와 사 같은 두 극단에 집착하여 편을 가르고 상대를 미워하고 없애려는 생각은 편견이고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노와 사가 입장이 다르더라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연기 세계관이야말로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루며 인류 문명의 위기, 사회 정치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안의 세계관, 가치관이라 하겠다.

한국 간화선의 가치

부처님이 깨친 연기 세계관은 사방으로 전해져 12세기에 이르러 중국 송나라대에 대혜(1089~1163) 선사가 화두 참선법인 간화선을 창안했다. 이것은 불교 역사에서 하나의 혁명이다. 당시까지 불교를 공부하던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을 열심히 보면서 세세생생 수행해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혜 선사는 달마대사가 전하고 육조 조계혜능대사가 제창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니 중생이라는 착각만 깨어나면 바로 부처라는 돈오선(頓悟禪)을 받아들이면서, 깨치는 방법에서 화두(話頭)라는 특출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일체 중생과 만물, 자연이 연기로 존재하니 그대로 본래 완전하다. 이것을 禪에서는 본래부처라 한다. 중생이 본래부처인데 중생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니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연기 세계관으로 보면 중생과 부처가 본래 차별이 없는 하나다. 그러니 중생이라는 어리석은 착각에서 깨어나 지혜를 밝히고 행복하게 살려면 '중생과 부처' 라는 이분법적인 가치관과 일체의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이 망상을 없애는데 바로 화두가 특효약이다.

간화선에서 화두는 일체의 망상을 없애어 지혜를 밝히는 탁월한 수행법이다. 특히 나와 너, 선과 악, 진보와 보수, 심지어 중생과 부처라는 잘못된 이분법의 가치관을 버리고 본래 완전한 연기를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화두 참선이다.

현대 문명이 이분법으로 양극화된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를 바로 세우려면 중도연기법의 세계관과 화두 참선으로 본래 다 갖추고 있는 내 안에 지혜와 평화를 밝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말이나 문자, 사유 분별에서만 멈추지 말고 화두를 통해서 연기법을 바로 체험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인류 문명의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우슬, 황칠, 두충, 가시오가피, 울금, 참당귀, 쇠비름, 독활, 마가목열매, 개다래열매,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